

꽃게 풍년 맞은 진도 어민들 어깨가 들썩~

19일 현재 658t·144억원

어린 꽃게 방류사업 효과

21~22일 '진도 꽃게 축제'

진도 꽃게잡이 어민들이 사상 최대 풍어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19일 진도수협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꽃게 어업이 19일 현재 위판량 658t, 위판액 1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특히 연말까지 200t, 40억원 이상 올릴 것으로 보여 올해 최종 어획고는 800t대·180억대까지 기대되고 있다.

진도 꽃게 어획량은 2014년 823t·117억원, 2015년 733t·127억원, 2016년 585t·128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다.

진도는 전국 꽃게 생산량의 25%가 잡히는 꽃게 주산지이다.

진도 조도 해역은 냉수대가 발달,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갯바위 모래층이 형성돼 최적의 꽃게 서식지로 다른 지역산보다 상품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거래가는 kg당 1만3000~1만5000원 선으로, 많이 잡히다 보니 지난해 1만7000~1만8000원 선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진도수협 관계자는 "하루 10t에서 많게는 15t까지 잡히는 대풍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어획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조도 해역을 중심으로 매년 실시해오던 어린 꽃게 방류사업이 사상 최대 풍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진도 꽃게를 알리기 위해 오는 21~22일 임회면 서망항 일원에서 '제8회 진도 꽃게 축제'를 연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공장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최근 전 직원들이 내고장상품 애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군산시 제공>

“지역민 힘 합쳐 GM 군산공장 살리자”

군산시 범시민 캠페인

한국지엠(GM) 군산공장 철수설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조선소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자동차 공장까지 빠져나갈 경우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군산공장을 지키기 위한 범시민 운동에 돌입할 태세다.

군산시는 19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위기를 극복하고 향토기업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민의 힘이 필요하다”며 군산공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군산시는 전북도와 함께 군산공장 현장학습·견학 활성화, 공무원 특판행사 등 공무원교육원에 지명 차량 전시홍보 등을 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버팀목인 군산공장 신뢰회복과 내수판매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2002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준공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2011년 승용차 26만대 생산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줄고 있으며, 현재 공장 가동률은 20%대다.

시는 또 노사민정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차사주기 결의대회 개최와 군산공장 살리기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군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시작한 '군산지역 내 한국지엠차 점유율 5% 올리기'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버팀목인 군산공장 신뢰회복과 내수판매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2002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준공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2011년 승용차 26만대 생산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줄고 있으며, 현재 공장 가동률은 20%대다.

/군산=박금식기자 nogusu@

“뱀사골 단풍축제로서 단풍놀이 제대로 즐기세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걷기대회·소원빌기 등

지리산 뱀사골 계곡의 화려한 단풍을 즐기는 '제 40회 뱀사골 단풍축제'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열린다.

단풍제는 약 9km에 이르는 뱀사골 계곡과 맑은 물, 형형색색의 단풍이 어우러지는 절경을 즐기는 자리다.

뱀사골 입구에서 지리산 천년송까지 이르는 약 2.5km 구간의 탐방 길을 이동호 산악대장과 함께 걷는 단풍길 걷기대회, 천년송 소원 빌기, 구절초 비누 만들기, 기념품 쓰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단풍음악회와 노래자랑 등 문화행사도 마련된다. 지리산 일대에서 생산되는 사



지난해 뱀사골 단풍. <남원시 제공>

과, 고사리, 오미자 등의 농·특산품도 싸게 살 수 있다.

지리산 단풍은 현재 고지대와 계곡을 중심으로 물들고 있으며 오는 26일경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단풍은 강우량과 기온이 적당해 예년보다 고운 편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부안 죽막동 유적’

사적 제541호 지정

토기 등 유물 다수 출토

고대부터 현대까지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지원하는 해양제사가 치러진 장소인 '부안 죽막동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1호로 지정됐다.

부안반도의 서쪽 해안 절벽에 있는 부안 죽막동 유적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해상 교류의 길목으로 평가된다. 이곳에서는 고대에 제사를 지낸 흔적이 남아 있고, 지금도 어부의 안전과 고기잡이를 돕는다는 해신 '개양할미'의 전설이 전해온다.

1990년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는 백제, 가야, 통일신라, 조선을 비롯해 고대 중국과 일본에서 제작된 토기, 도자기, 금속유물 등이 출토됐다.

/남원·부안=김민준기자 jun@

메타세쿼이아에서 크리스마스 낭만을

담양군 첫 산타축제

12월 8일부터 한달간

대나무와 메타세쿼이아 고풍으로 유명한 담양군이 겨울 산타 축제를 연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은 올해 처음으로 산타 축제를 오는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담양읍과 메타프르방스 일대에서 연다.

총예산 1억원을 들여 대형 트리, 포토존,

빛을 반사하는 각종 구조물을 설치한다.

축제 기간 주말에는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한다.

전남에서 보성군이 겨울에 빛 축제를 하는 것 외에 대형 트리 등을 소재로 겨울 아이템인 산타 축제를 여는 것은 담양군이 처음이다. 담양군 공무원들은 이번 산타 축제를 위해 부산 중구 크리스마스트리문화 축제, 경북 봉화군 분천역 산타마을 축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이를 축제를 벤치마킹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여수시 관광정책 시민 위원이 나섰다

개선방안 논의 활발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여수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수시가 지난 18일 연 '100인 시민위원회'에서 시민 위원들을 중심으로 '시민중심의 미래 관광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들은 시민 할인 혜택 확대와 주차난 해소, 시민 문화카드 보급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바깥회장과 기업체 주차장 개방, 금·토요일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이 제시됐다. 관광객이 몰리는 종포해양공원 남만포치를 이전하거나 포차 주변에 청소인력을 상시 대기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민 위원들은 공익기부 등을 통해 연간 10억원 가량 모이는 관광진흥기금의 사용 방안으로 청소년수련관·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마을 단위 소규모 주차장 건립 등을 꼽았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여순사건 69주기 위령제

시민 등 200여 명 참석

여수시는 지난 19일 여서동 미관광장에서 '여순사건 발생 제69주기 위령제 <사진>'을 열었다. 위령제에는 황순경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과 회원, 주철현 여수시장, 김광장, 지역 도·시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 등 3개 종단도 위령제에 참석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유족회가 준비한 전통제례 추모제와 3개 종단의 추모제, 희생자에 대한 묵념, 추모사, 분향·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68주기를 지난해부터 위령제를 직접 주관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장성 북하면 장성호 백암사 인근 2803㎡ 환경좋은 1억3천
- 화순 동북면 가우리 2175㎡ 은행 2300 요양주택 절 적합 4800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판만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하면 백암동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방2, 거실, 기계10평 월산동 상가주택 임대 농성초등학교 건너편 2천만원에 68
- 서동 제일파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원도 약산대지 1266㎡ 주택 27평과 별채 황토방산 12393㎡ 포함 1억8천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도전합 4억
- 화순읍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북촌주택 60여 평 판백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매도·교환

- 일계장 허가난 땅 장흥군 장흥읍 15615㎡ 건물 4810㎡ 도로조건 등 좋은 6억9천
- 남구 임암동 상업지 주차장부지 890㎡ 투자에 양호 34억
- 영암 심호읍 땅 1212㎡ 건물 925㎡ 은행2억5천 매도4억3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답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상가건물

- 북구 용봉동 아파트단지 입구 땅 1026㎡ 상가 1538㎡ 49억
- 계림동 상업지 대지 106㎡ 북촌건물 122㎡ 식당·카페적합 1억6600
- 농성동 4차선점 대지 132㎡ 건물 237㎡ 은행 2억5천 매도 6억4천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물 997㎡ 병원·사무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4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인근 1억7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물 971㎡ 27실 6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현천, 농성초교옆문앞

“급 매”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